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2 (2022): 83-108.
https://doi.org/10.22927/snuibe.2022.33.2.83

18세기 후반 20세기 초, 쿠바에서 나타난 설탕 산업 확대와 자연경관 변화*

장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수환(2021), 18세기 후반 20세기 초, 쿠바에서 나타난 설탕 산업 확대와 자연경관 변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3(2), 83-108.

초록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쿠바에서 있었던 설탕 산업의 성장과 자연경관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식민시기와 독립 이후의 설탕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쿠바섬에서의 설탕 산업의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산림 경관의 변화에 관해 문헌 자료를 살펴보았다. 식민시기 쿠바에서의 설탕 산업은 스페인 제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 아이티 혁명, 흑인 노동력, 그리고 미국의 영향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쿠바 독립 이후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집중적인 투자가 몰리면서 설탕 산업이 성장했다. 그 시기 쿠바의 설탕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기존의 재배지였던 쿠바섬의 서부나 중부보다는 당시 개발이 덜 진행된 동부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기존 구식 시설을 대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고, 또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이 기개발지역보다 저렴했으며, 기존의 농지보다 산림 지역을 개간하여 농지화하는 것이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독립이전까지는 쿠바의 서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울창했던 산림 지역인 까마구에이와 동부지역으로까지 공장과 철도 등 설탕 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이 활발히 건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쿠바 동부의 경관은 다양한 수종이 있던 울창한 산림 지역과 야자나무와 관목이 있던 사바나 지역에서 설탕 산업을 위한 대단위 플랜테이션과 관련 시설지역으로 변화되었다.

핵심어 산림 벌목,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경지화, 쿠바 동부, 까마구에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058027)

I. 서론

에르난 꼬르떼스(Hernán Cortés)는 400명의 스페인인과 3,000명의 원주민을 쿠바섬의 원정에 끌어들였고, 이 원정 과정에서 쿠바섬의 원주민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정복 초기에 쿠바의 주요광물인 금이 고갈되어가자, 스페인령 아메리카 식민지 체계에서 이 섬의 주요 역할은 스페인 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중간 기항지로 그 기능이 옮겨갔다. 16세기 중반 이후 쿠바가 스페인과 스페인령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기점으로 부상하자 1553년 산토도밍고(Saint Domingue, 1697년 이후 프랑스 식민지인 생 도맹그) 총독은 총독청을 아바나로 옮긴다. 그 이유는 당시 히스빠니올라 섬에 있는 아우디엔시아의 최고법원이 적시한 것처럼 아바나가 신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이었다(김희순 2016, 116-117). 아바나는 식민초기에는 스페인의 금괴 함대를 위한 기항지였고, 18세기에는 담배 무역을 위한 항구 도시로 성장했다. 쿠바는 설탕 생산량이 다른 카리브 섬보다 미미했기 때문에, 생 도맹그에서 있었던 아이티 혁명(1791)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카리브 해 설탕 경제에서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설탕은 이 섬의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Bosma & Curry-Machado 2012, 240-241).

16세기 이후 상품 작물은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설탕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제한된 사탕수수 생산량을 점점 넘어섰고, 이에 일찍부터 유럽 세력들은 식민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인 쿠바섬은 18세기 전반까지 담배농업이 지배적이었다면 18세기 후반부터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통해 구대륙에 기호 상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처로 부상했다.

스페인 군대 도착 이전의 쿠바섬의 '본래의' 식생에 대한 질문은 그 지역의 식물, 지리,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흥미로운 주제였다. 19세기 초 약 5년 동안 아바나(Habana)를 두 번 방문했고 쿠바섬의 서부 일부를 여행했던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는 "쿠바섬은 야생 레몬, 오렌지 나무의 자생지였다"라고 기술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스페인 자연

학자 라몬 데 라 사그라(Ramón de la Sagra)는 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쿠바 섬의 대부분 지역이 사바나 다년생 식생보다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메워 올라가는 기생식물(parasitical plants)이 빽빽하게 있었고 울창한 수목으로 덮여 있었다고 기술하였다(Monzote 2009, 8-9). 카리브 해 지역의 자연 경관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식민시기에서부터 재배된 특정 열대 작물의 플랜테이션(plantation)이 자연경관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쿠바섬에서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설탕 산업의 성장이 이 섬의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쿠바 설탕 산업의 국제적 동인에 관해 스페인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아이티 혁명, 흑인 노동력, 그리고 미국 영향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쿠바의 산림법 개정과 사탕수수 확산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법을 통한 벌목허가, 철도망의 확대, 그리고 설탕 산업의 확장과 규모 확대 등을 순서로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산림 경관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플랜테이션과 센뜨랄레스(centrales)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동부지역(Oriente)의 산림 경관 변화에 관한 당시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였다.

II. 쿠바 설탕 산업의 국제적 동인

1. 스페인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1493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히스파니올라 섬으로 사탕수수를 가져왔다. 카리브해 기후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데에 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섬에서 사탕수수 경작지는 그 이후 약 300년 동안 천천히 확산하였다.

쿠바에서 상업 목적의 설탕 생산은 17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나 17세기 중반까지 쿠바의 설탕 제조는 다소 원시적이었으며, 당시 주요 설탕 생산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스(Barbados), 자메이카(Jamaica), 과달루뻬(Guadaloupe), 그리고 특히 생 도맹그에 비하면 미미했다(Ulbe & Curry-Machado 2012, 242). 쿠바가

사탕수수 생산지로서 지역적 규모의 역할이 증가한 시기는 17세기 말에 들어서였다. 1670년대까지 비교적 지역 규모의 설탕 붐이 있었고 주요 항구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약 100여 개의 설탕 공장(sugar mill)이 들어섰다. 그러나 1739년 아바나 왕립 상업 회사(Real CompaÒÌa de Comercio de La Habana)가 설립될 때까지 설탕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18세기 스페인 제국은 왕위계승 전쟁(1701-1714)으로 인해 많은 식민지를 잃었고 세력이 축소되었으며 유럽의 7년 전쟁(1756-1763) 이후에는 독점적 무역체제조차도 붕괴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유럽의 7년 전쟁 기간에 영국에 의해 1년여 동안(1762-1763) 점령당했던 쿠바는 스페인의 독점 무역 정책이 제거되면서 경제적 성장을 누렸다(정재호 2004, 77-78).

1778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쟁이 종결되면서 스페인은 주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스페인과 인디아스 사이의 자유무역 규정(Reglameto para el comercio libre de España a Indias, 1778)으로 인한 스페인 식민 체제의 행정 및 상업 개혁은 설탕 산업의 발달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쿠바는 부르봉 개혁으로 알려진 까를로스 3세(Charles III)의 세제개혁이 실시된 첫 식민지였고, 당시 스페인 정부와 쿠바 크레올 사이의 독특한 관계가 발전한다. 스페인 정부는 쿠바의 엘리트가 스페인 법정에서 고위 권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설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접근이 쉽도록 경제적 양해권을 부여했다. 18세기 말까지 쿠바의 설탕 생산은 아바나 지역을 주요 중심지로 했으며, 주요 항구와 도심을 중심으로 점점 더 반경을 넓혀갔다(Monzote 2005, 113). 18세기 말 아바나는 도시 방벽을 넘어 외곽으로 성장해나갔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사탕수수 재배지대가 형성되었다(김희순 2016, 122). 18세기 말의 10년은 쿠바의 설탕 플랜테이션 소유주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아이티 혁명으로 생 도맹그 지역에서의 설탕 산업이 쿠바로 이전해왔고, 설탕 가격은 치솟았다, 게다가 스페인은 무역을 자유화했으며, 새로운 기술은 발전되어 효율적인 근대식 공장에 도입된 시기였기 때문이다(Portuondo 2003, 231-237).

1826년까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모든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독립

을 맞았다. 1898년 쿠바가 독립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이나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보다 오래 쿠바가 스페인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에는 스페인 시장에 대한 유리한 접근을 유지하고자 한 쿠바 설탕 재배자들의 열망이 큰 몫을 했다(McNeill 2010, 287).

2. 아이티 혁명과 쿠바 설탕 산업의 부상

쿠바에서 근대식 설탕 생산은 당시 세계의 최대 설탕 생산지였던 생 도맹그에서의 설탕 산업의 급작스러운 쇠퇴와 브라질에서의 설탕 산업의 축소와 함께 시작되었다. 프랑스령 식민지였던 생 도맹그에서 설탕 생산이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 것은 1791년에 발발한 아이티 혁명 때문이었다. 이 혁명 이전, 쿠바의 설탕 제조업은 카리브해 설탕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다(Manuel 2007, 147). 1697년 산토도밍고는 프랑스령 식민지로 편입되었고, 이후 당시 유럽에 공급할 사탕수수와 커피를 재배하는 여러 식민지 중 생산력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 또한, 구대륙으로의 기호품 무역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을 실어와 강제 노동을 착취했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그러던 1791년 이 지역에서 당대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흑인지도자 뚜쌩 루베르뛰르(Toussaint L'Ouverture)의 진두지휘 아래 흑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1804년에 '아이티공화국'을 수립한 것이었다(한서린 2012, 141-142). 아이티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는 이 지역에서 사탕수수 등 플랜테이션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곳뿐만 아니라 식민제국의 플랜테이션으로 이미 프랑스령과 영국령 카리브해의 자연경관은 큰 변화를 겪었고, 생 도맹그는 그 정점에 있었다(McNeill 2010, 303).

그러나 1791년 생 도맹그에서 시작된 아이티 혁명으로 그 지역에서의 설탕 산업은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생 도맹그에서 철수한 기술자와 사업가들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쿠바섬으로 들어온다. 당시 쿠바의 크리올 엘리트는 1791년 아이티 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재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1792년 쿠바는 자메이카와 브라질에 이은 설탕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쿠바에서 설탕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티혁명으로 인해 생 도맹그 지역의 설탕 산업이 쿠바로 이전했기 때문이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 섬의 비옥하고 충분한 토지, 축적된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흑인 노동력 때문이었다. 유럽으로의 쿠바 무역은 때로는 직접 이루어졌고, 때로는 다른 곳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 1789-1799) 기간과 나폴레옹 제국 시기(1804-1805)에 점차 안정적으로 굳혀졌다. 쿠바는 당시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설탕과 커피와 같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Zanetti & Garcia 1998, 4-5).

대앤틸리스제도(Greater Antilles)에서 가장 큰 섬인 쿠바는 점차 세계의 설탕 공급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는 17세기부터 설탕 생산에 이용되어 온 카리브해의 작은 섬 중 대다수가 이미 토양 질적 악화와 부족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 결정적으로 생 도맹그에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 번성했던 플랜테이션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아이티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광활한 미개척 토지가 있는 쿠바섬은 이러한 설탕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었다(Ulbe & Curry-Machado 2012, 242).

3. 흑인 노동력

1700년대 초, 약 5만 명이었던 쿠바의 흑인 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1789년 스페인은 외국 상인에게 노예무역을 개방하기로 선언하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설탕 생산을 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꾀하였다(Portuondo 2003, 237). 1800년에 쿠바를 방문했었던 훔볼트가 이 섬을 "설탕과 노예의 섬"으로 부를 정도로 노예 인구는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 특징이었다. 19세기 초 국제무역을 위해 설탕, 커피 등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은 쿠바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800년에서 1850년 사이 쿠바는 세계적인 설탕 생산지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1800년 12월 19일에 쿠바에 도착한 훔볼트의 기록에 의하면 아바나에는 9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만 9천 명은 노예였고, 2만 6천 명

은 노예가 아닌 자유 유색인이었다고 한다(스카파시 & 포르텔라 2017, 17-22).

영국과 스페인의 노예제는 각각 1807년과 1817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쿠바에서는 1790년에서 1820년까지 369,000명의 흑인 노예가 아프리카에서 유입되었고, 1851년부터 1860년까지 131,000명이 브라질을 거쳐 쿠바로 들어왔다. 1790년에서 1860년까지 쿠바로 들어온 72만 명의 흑인 노동력은 당시 쿠바 설탕 산업을 장악한 쿠바의 크레올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

1860년경 사탕수수는 쿠바의 전체 농업 생산량의 89%를 차지했으며, 농장은 대부분 아바나와 마딴사스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다(마르크 페로 2008, 254-257). 특히 1820년에서 1860년까지 약 40년 동안 노예제도로 유지되는 플랜테이션과 설탕 농산품 가공업이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미국의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1865)에서 노예제를 찬성하던 남부연합이 패배하면서 미국에서 노예를 이용하여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던 많은 농장주가 쿠바로 이동하였다. 1800년대 중반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설탕 생산-수출체계를 만들었으며, 흑인 노동력을 가장 크게 착취한 곳 중 한 곳이었다(Manuel 2007, 145).

1790년에서 1867년 사이에 약 800,000명의 아프리카인을 쿠바로 끌고 왔고 당시 이는 아마도 쿠바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처럼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제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1840-50년대 이후 노예무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1867년에 노예무역이 종결되면서 쿠바는 점점 더 많은 이민자를 끌어들였다. 매년 수만 명의 스페인 사람이 쿠바에 왔는데, 일부는 군인으로, 일부는 계절 노동자(연간 10,000~20,000명)로 와서 사탕수수와 담배를 수확했으며, 일부는 체류를 희망하는 이민자로 들어왔다. 1830년에는 아프리카계 쿠바인이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했지만 1870년에는 약 40%를 차지했고 쿠바인 4명 중 1명만이 노예였다. 수십만 명의 인도인과 중국인이 트리니다드(Trinidad), 영국령 가이아나(British Guyana)에서 쿠바의 대규모 농장(plantations)에서 일하기 위해 이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 1880년대까지 100,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사탕수수 경작지에 일하러 왔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 섬에 남기도 했다(McNeill 2010, 287-297). 그러나 1870년대까

지도 쿠바의 설탕 생산은 절대적으로 노예제에 의지하고 있었다. 1877년 쿠바의 주요 설탕 생산 지역에 있었던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중 70%는 노예였다(Bergad 1989, 96).

4. 미국의 영향

쿠바는 식민지 시기에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와 스페인 간 무역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이후에는 미군정의 시기를 보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김기현 2016, 35-36).

쿠바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의 13개 식민지는 당시 이례적일 정도로 좋은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있었다. 1783년 이후 미국은 영국령 서인도 식민지(British West Indian colonies)로부터 열대의 생산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연한 상업적 기회에다가 바로 이전인 1776년 스페인과 인디아스 사이의 자유무역 규정(Reglameto para el comercio libre de España a Indias) 덕분에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뜨리니다드, 까실리다(Casilda), 그리고 바따바노(Batabanó)와 같은 항구는 '소규모 항구(minor ports)' 로 분류되어 직접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무역로는 다양해졌다.

미국의 결정적인 영향은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의 이후에 나타났다. 이 전쟁으로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후 미국은 쿠바 내에서 정치과정을 통제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mith 1995, 31-34). 미국은 1898년 이전에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했지만, 쿠바 내 반란군을 은밀히 지원하였고(McNeill 2010, 302), 미국 자본가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쿠바섬의 토지를 사들였다. 1차 생산의 특화에 의존하여 유지되는 당시 쿠바의 단작 경제(monoculture economy)는 외국인 자본과 세계시장에서의 높은 설탕 가격에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은 쿠바의 주요 자본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쿠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설탕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McCollum 2011, 4).

1902년경 쿠바섬의 설탕 산업의 약 40%는 미국 투자자의 관리 통제하에 있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설탕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쿠바섬은 설탕 산업의 팽창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이었다(Smith 1995, 33-34). 게다가 1903년 미국과 쿠바가 합의한 상호조약(Reciprocity Treaty)으로 미국인 투자는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쿠바섬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가속화되었다(Hitchman J.H. 1971, 60).

이 시기 쿠바 설탕 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의 몇몇 사례를 들 수 있다. 스페인계 미국인 마누엘 온다(Manuel Ronda)는 1893년에 뚜이니꾸(Tuinicú) 설탕 공장을 지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사업자와 함께 1899년 까마구에이(Camagüey) 남부지역에 26,800ha가 넘는 토지를 매입하여 프란시스꼬(Francisco) 설탕 공장을 지었다. 같은 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United Fruit Company)는 과거 바나나가 재배되던 바네스(Banes)인근 지역에 설탕 공장을 지었고, 니뻬(Nipe)만 인근에 약 8만 헥타르의 토지를 189,000달러에 사들였다. 하울리(R. B. Hawley)는 뿌에르또 빠드레(Puerto Padre) 항구 인근에 비슷한 투자를 하여 여기에 차빠라(Chaparra) 설탕 공장을 짓는데, 이 설탕 공장과 함께 마딴사스(Matanzas)에 들어선 띤구아로 메르세데스(Tinguaro and Mercedes) 설탕 공장은 쿠바 아메리칸 슈가 컴퍼니(Cuban American Sugar Company)의 토대를 형성했다. 당시 뉴욕, 보스톤, 기타 미국의 도시에서는 자본가들이 쿠바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연합체(syndicate) 형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자주 냈는데, 이는 금융 활동의 돌풍으로 이어졌고, 쿠바를 미국 자본가들의 투기대상으로 몰아넣었다(Zanetti & Garcia 1998, 211-212).

특히 쿠바의 동부지역(Oriente)에서는 미국인 투자자에 의해 설탕이 대부분 생산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토지 소유권이 쿠바인에게서 미국인에게 넘어갔다. 비단 동부지역만 아니라 1910년 당시 쿠바 전체 토지의 약 75%를 아메리카인과 쿠바에 거주하는 스페인계가 차지하였다. 쿠바 토지 면적의 단 25%만이 쿠바인의 소유인 셈이었다. 쿠바 동부지역에서 1910년 이후에 건설되거나 수리된 설탕 공장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었으며, 주로 미

국 뉴욕의 체이스 내셔널 뱅크(Chase National Bank), 퍼스트 내셔널 시티 뱅크(First National City Bank), 그리고 캐나다의 로얄 뱅크(Royal Bank) 로부터 들여온 것이었다. 이들 은행은 높은 이자로 대출해줬는데, 이 높은 이자율은 계속 오르는 설탕 가격으로 지탱되고 있는 셈이었다(Santamarina 2001, 83-84). 미국에 기반을 둔 쿠바 설탕 산업 투자자들은 매우 유리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서 쿠바에서 이윤을 내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설탕 산업은 당시로써는 인기 있는 투자처였고. 신규 설탕 회사는 불과 몇 주 만에 조직되기도 했다. 그리고 수개월 내에 광대한 토지에 사탕수수를 심었고, 거대한 설탕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한 기업 중 하나는 마나띠 설탕 회사(Manati Sugar Company, 1912)로 뉴욕에 기반을 둔 산업체였다. 이 회사는 곧 쿠바에서 가장 큰 설탕 산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쿠바의 설탕 산업 성장은 쿠바섬의 자연과 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세계의 세력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쿠바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의 확장과 설탕 산업의 확대는 시장에서 단기적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었으며, 따라서 쿠바의 산림은 사탕수수 재배지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III. 쿠바의 산림법 개정과 사탕수수 확산

1. 산림법의 벌목 허가

쿠바 설탕 산업의 초기인 1600년대부터 설탕 플랜테이션과 공장을 짓기 위한 벌목과 화전은 이미 있었다. 당시 설탕 농업은 아바나에서의 건선 제조를 위해 필요한 목재와 도시에서 쓰일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지역에서 나무가 제거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차츰 이러한 숲의 벌목을 둘러싸고 스페인 해군과 토지소유자 및 사탕수수 재배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스페인 해군은 사탕수수의 급속한 경작 붐으로 인해 산림지역이 농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아바나 조선소는 스페인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조선소 중 하나였으며 배를 건조하기 위해 벌목용 예비지로 둔 산림지역을 침범하려

는 설탕 공장 주와는 갈등이 야기되었다. 아바나 조선소로 목재가 이동된 지역은 우선 가축 목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역에 사탕수수 농업이 자리 들어온다는 것은 숲의 소멸을 의미했다. 1700년대 중반부터 설탕 산업은 아바나의 주변부를 넘어 확장해나갔다(Manuel 2007, 147).

쿠바섬에서 스페인 해군의 조선소 운영과 상업 농업의 대결은 18세기 마지막 4분기와 19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였다. 18세기 말까지 상업적인 농업은 법원(Cortes del Rey)의 결정에 따라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었지만, 사탕수수 재배지역이 확장되면서 해군의 산림지 유지와 사탕수수의 재배지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772년 이후로 아바나의 산림 개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가축, 임업, 농업 착취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거나 적어도 어느 하나가 나머지에 대한 명확한 우위가 없었다. 그렇다고 배를 건조하기 위한 벌목이 나무 보존을 위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사탕수수 재배지의 확장에 대한 당시 스페인 해군의 우려는 아바나 조선소에서 숲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추가와 더 관련이 있었다. 1770년대에 시작되어 오랜 대치 끝에 1815년에 이르러서야 종식된 아바나의 설탕 공장주와 스페인 해군 간의 긴장은 토지 소유주가 주장하는 수출용 제품 생산과 자원 이용의 개별화와 스페인 제국을 위해 중요한 해군의 유지를 위한 자원 이용이 맞선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815년 8월 30일 왕실 공의회(Royal Decree)는 개인에게 벌목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Monzote 2005, 107-112). 이 새로운 법은 개인에게 벌목을 허가해줌으로써 토지주가 사탕수수 농업을 위해 산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 그것으로 설탕 플랜테이션은 쿠바섬 대부분을 덮고 있었던 풍부한 산림을 제거하면서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1815년을 기점으로 산림의 이용과 소유권을 둘러싼 이념적·법적 변혁과 철도 및 기계와 같은 기술적 도입으로 인해 쿠바의 자연경관을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Monzote 2005, 109).

1840년대 설탕 산업은 아바나의 동쪽으로 더욱 확장해갔으며, 사실상 단일

재배 지역으로 변해갔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은 마딴사스였다(Manuel 2007, 147). 설탕 산업은 쿠바섬 시골의 오래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밀집한 숲은 사탕수수가 경작되는 균질한 토지로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설탕 가공과정에서 주변의 나무를 베어 사용하려는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더 큰 규모로 설탕 산업을 하던 부유한 농장주(hacendados)의 농장에서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었다.

2. 철도망의 확대

사탕수수 재배자들은 철도와 전신을 스페인보다 먼저 쿠바로 들여왔고, 설탕 산업에 최신의 기술을 활용했다. 그들은 농장에서 설탕을 가공하기 위해 증기 엔진을 사용했다(McNeill 2010, p.296).

1837년 쿠바의 첫 번째 철도역인 비야누에바(Villanueva)가 세워졌고, 아바나에서 베후깔(Bejucal)에 이르는 51km의 구간에 철로가 건설되었다. 이는 쿠바의 남동부 마야베께(Mayabeque Province)의 기네스(Güines)지역의 사탕수수를 아바나로 이동시키기 위한 철도였다. 첫 철도가 놓인 후 15년 동안 쿠바에서는 9개의 철도회사가 생겨났다. 1851년까지 총 558km의 철로가 깔렸는데, 이는 한 해 평균 37.2 km의 철로가 생겨난 셈이었다(Zanetti & Garcia 1998, 56). 1840년에서 1850년대 동안에 아바나, 마딴사스, 시엔푸에고스, 까르데나스 항구에서 내륙 쪽으로 정교한 철도망이 구축되었다. 철도는 사탕수수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향해 더욱 뻗어 나갔고, 1860~1870년대 설탕 사업가들은 자신의 경작지에서 설탕 공장으로 사탕수수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들의 토지 내에 철도체계를 연결하여 수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Bergad 1989, 95).

물론 철도확장보다는 쿠바섬의 자연환경은 19세기 설탕 생산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기후, 토양, 지형의 조화는 풍부한 수확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 설탕의 상업적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음을 분명했다. 그러나 기계화와 철도연결은 더 먼 지역에서 설탕 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할 기회를 결정적으로 제공한 셈이다(Smith 1995, 34). 사탕수수는 식물 특

성상 증발 작용으로 인해 수분을 잃기 쉽고 수크로오스(sucrose)의 효소성 저하(enzymatic degradation)로 설탕의 당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벌채 후 24시간 이내에 밀링(milling) 과정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거대한 센뜨랄레스(centrales)는 사탕수수 농지에서 벌채한 사탕수수를 신속히 그 설탕 공장으로 옮겨올 철도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Smith 1995, 33-34). 1870년대 무렵 쿠바는 세계 설탕의 42%를 공급했다.

쿠바 독립전쟁 이후의 미군정 하에서 미국은 쿠바의 선로를 수선하고 철도 운송체계를 재구성하였다. 1902년 군사명령34(Military Order Number 34)는 쿠바섬의 철도체계와 표준화된 운임을 관리하는 법률이었다. 이때 주요 철도가 확장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인구가 낮은 동부지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세기 첫 10년 동안에 사탕수수 생산의 새로운 지역으로 부상한다. 미국인 투자자는 쿠바 동부지역으로 뻗어간 이 전용 철도를 통해 설탕 산업을 더욱 확장하였다. 철도 발달은 쿠바에 설탕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자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운송비를 절감해주었기 때문에 설탕 공장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를 절감해주었다. 또한, 철도로 인해 신기술을 갖춘 고용량의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00년 이후로 쿠바 동부지역에 지어진 설탕 공장은 대단위로 설탕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체였다(Santamarina 2001, 75). 미국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는 미국을 신뢰하면서 쿠바 동부에서의 개발 규모는 더욱 커졌다(McCollum 2011, 6).

3. 설탕 산업의 확장과 규모 확대

18세기 중반까지 쿠바섬은 소규모 농업형태의 정착민 공동체로 남아 있었으며, 가장 광범위하고 수익성 있는 상업 활동은 왕실 독점인 담배의 수출이었다. 쿠바 설탕 산업은 초기에는 소규모로 행해졌으며 주로 현지 소비를 위해 생산했었다. 그러다가 점차 유럽의 지중해 지역에서 설탕 산업의 악화로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자 대체지로서 쿠바가 부상했다. 쿠바의 설탕 생산량은 1750년 4,969톤에서 1800년대에는 28,761톤, 그리고 1850년에는

294,952톤으로 증가했다(Bosma & Curry-Machado 2012, 238-242).

그 당시 세관 자료에 의하면 1786년부터 1824년까지 아바나로부터 수출된 설탕의 양은 다음과 같다. 1786년 63,274박스(boxes)에서 1823년에 300,211박스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쿠바로부터의 정확한 수출량을 얻기 위해서는 아바나 이외에도 다른 항구 특히 마딴사스, 산티아고 데 쿠바, 뜨리니다드, 바라꼬아(Baracoa), 마리엘(Mariel)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정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불법 무역량에 대한 자료도 없다(Alexander von Humboldt 2012, 156-157).

1800년과 1804년에 쿠바섬을 두 번 방문한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같은 유럽의 지식인은 사탕수수와 같은 상업 작물의 재배에서 보듯이 '유럽인의 경솔한 활동'이 다른 대서양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자연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홈볼트는 그 당시 사탕수수와 같은 상업 작물 재배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물 재배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자급작물을 포기하고 상업적 가치가 높은 몇 가지 품목을 외부 세계와 교환하고자 함으로써 대두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Monzote 2005, 107).

1750년에서 1895년 사이 쿠바의 설탕 생산은 다양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894년 쿠바 설탕 생산량은 1백만 톤을 넘겼고, 1895년의 독립전쟁 발발로 설탕 부문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까지 번창해왔다. 그러다가 1895년 이후 5년 동안의 연중 평균 생산량은 약 275,000t으로 줄어든다. 1894년 약 1,100개의 설탕 공장이 있었는데 1900년경에는 약 200여 곳만이 남게 된다. 하지만 1898년 이후로 생산량은 이전의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03년에는 1백만 톤을 다시 회복한다. 그러나 생산에서의 이러한 증가는 공장 수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집중되면서 대규모의 설탕 공장을 운영하고 설탕 생산을 집중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14년 생산량은 1903년의 생산량에 비교해 두 배로 증가했지만, 설탕 공장의 수는 173개로 오히려 더 감소하였다(Smith 1995, 32-33).

IV. 가속화된 쿠바의 산림 경관 변화

1. 플랜테이션과 센뜨랄레스

19세기 초, 쿠바섬은 수익성이 더 좋은 사탕수수를 위해 다른 식량 작물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콩과 쌀 등 주요 농산물을 외부로부터 수입하였다. 사탕수수 재배자들은 수확을 교대로 하거나 옥수수와 같은 식량 작물을 사탕수수와 함께 재배하는 윤작 형태를 반대하였다. 한 작물의 수확과 다른 작물의 파종 사이의 동안에 열매와 풀이 토양의 비옥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탕수수의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840년대에는 허리케인, 농촌의 은행이나 신용 기관의 부재, 그리고 1868년에서 1898년 사이에 세 차례 독립전쟁의 여파로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체계의 지배를 받는 경향은 뚜렷이 증가하였다(Ulbe & Curry-Machado 2012, 249). 대표적인 지역은 19세기에 자연환경 변화를 현저하게 초래한 대규모 설탕 농장이 들어선 마딴사스와 산따끌라라(Santa Clara)였다(표 1). 1899년 산따끌라라는 쿠바섬의 설탕 생산량 중 약 41.9%보다 적지 않았을 것이고, 마딴사스의 경우는 30.1%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지역의 상대적인 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면적에서의 비율상으로 판단해보면 산따끌라라보다 마딴사스 지역에서 설탕 산업의 중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Boyer 1939, 312).

다만 10년 전쟁(Guerra de los Diez Años 1868-1878)은 설탕 산업이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나 10년 전쟁이 끝나자 쿠바 동부에서 사탕수수 농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쿠바 동부에서의 농업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1898년 이후 외국인 투자의 팽창 때문이었다. 쿠바의 동부는 일찍이 개발된 서부와는 달리 여전히 광범위한 숲이 있었고, 설탕 산업 투자자에게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토지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매력적인 장소로 보였다. 쿠바 동부지역(Oriente)은 현재의 다섯 개 지방(Province)을 포함하는데, 그란마(Granma), 관따나모(Guantánamo), 올긴(Holguín), 라스 뚜나스(Las Tunas), 산티아고 데 쿠바가 속한 지역이다(Smith 199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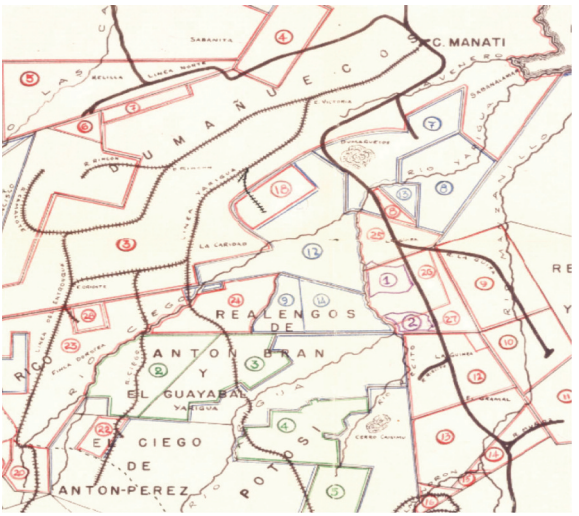
〈표 1〉 1899년의 지역별 설탕 지역의 분포

지역	꼬르델스 (Cordels*)	쿠바의 설탕 재배면적 중 비율	지역 내 경작지 중 설탕 생산지 비율
산따끌라라	1,735,000	41.9	71.3
마딴사스	1,245,501	30.1	78.4
동부(Oriente)	691,100	16.7	34.5
아바나	279,444	6.7	27.0
까마구에이	105,500	2.5	34.7
삐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	85,471	2.1	6.1

출처: Boyer 1939, 312
*끈 등으로 꿰어 물건을 세는 단위

설탕 산업은 단일 재배와 대규모의 생산 공정으로 전환되었다. 대규모의 설탕 생산 방식은 투입대비 산출에서 큰 이윤을 냈지만, 대규모 기계화된 설탕 산업은 쿠바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앞서 제시했던 센뜨랄레스 마나띠이다. 이곳은 3,000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건설 외에도 사탕수수를 시설로 가져오고 가공된 설탕을 마나티 중심부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것을 인근 항구로 운송하기 위한 철도체계를 구축했다. 외국 자본은 쿠바의 시골에서 토지를 사들이고 기계화한 농업 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토지 확보는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림 1>은 마나띠 설탕 회사의 철도망이 농경지로 확장된 후 중앙에서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쿠바 동부 시골의 변화는 센뜨랄레스의 등장의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센뜨랄레스가 지역에 들어서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주변 토지의 공급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센뜨랄레스에 사탕수수를 판매할 기회가 있었던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참여를 통해 계속해서 더욱 확대되었다. 마나띠의 철도연결망은 주변 지역의 공급을 하나의 시설로 집중시켜서 설탕을 가공할 때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연결된 철도를 통해 인근 항구로 이동한 설탕은 외국으로 이동되었다. 그림 1은 마나띠 회사가 공장 주변에 건설한 철도망을 보여주며, 이 회사가 소유한 토지, 타인에게



〈그림 1〉 마나띠 설탕 회사의 철도연결망

출처: Ricardo 2021, https://storymaps.arcgis.com

임대한 토지 등의 내용과 인근 토지의 소유자를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Ricardo 2021).

미국과의 상호주의 조약(1903)으로 인해 관세는 감소하였고, 1914년에서 1920년 동안 설탕 가격은 치솟았다(Santamarina 2001, 86). 쿠바 동부에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사들이고 새로운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기존 쿠바 서부에 있는 오래된 설탕 공장을 구입하고 개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동부지역으로 설탕 산업은 빠르게 확장되어갔다. 미국 자본가들은 기존에 오래된 구식의 기계를 이용하던 많은 쿠바 재배자를 자신의 설탕 산업으로 흡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작농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쿠바 동부지역에서는 설탕 라티푼디아스(latifundias, 광대한 토지)가 빠르게 확장되어갔다(McCollum 2011, 6). 20세기 초 쿠바에서 일어난 설탕 산업의 확장은 외국 자본에 의한 광대한 토지의 경지화(domestication)와 자원의 점유(appropriation) 및 종속(dependency)의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쿠바의 자연 자원은 수출을 위한 농산품 생산지로서 국제적 시스템으로 엮여 들어갔다(Smith 1995, 32).

2. 동부지역의 산림 경관 변화

19세기, 쿠바섬에서 설탕 재배지역은 아바나에서 서쪽인 마딴사스 너머로, 트리니다드에서 시엔푸에고스(Cienfuegos)로 확장해나갔고, 중부지역에서는 사구아 라 그란데(Sagua la Grande), 산 후안 데 로스 레메디오스(San Juan de los Remedios), 산띠 스삐리뚜스(Sancti-Spíritus)주변으로 확장해나갔다. 그리고 동부지역에서는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관따나모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초기 확장 기간에 토지 재정비와 산림 벌목을 통해 사탕수수 농장과 함께 식량 또는 기타 상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장이 생겨났지만, 1880년대부터는 센뜨랄레스가 설립되면서 대부분 농지에서는 사탕수수를 재배하였다(Ulbe & Curry-Machado 2012, 248).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1882년에 한 평론가는 이전에는 산림 지역이나 풀이 무성한 사바나지역에, 또는 소규모의 사탕수수 공장(ingenios), 목장, 기타 유형의 농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곳에 새로운 센뜨랄레스가 들어섰다고 기록을 남겼다(Curry-Machado 2010, 24).

식민시기 과거 300년 동안 사탕수수 산업이 아주 느리게 성장해 왔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매우 빠르게 성장해나갔다(Boyer 1939, 311). 1898년 쿠바 독립 이후 동부지역의 광대한 숲에 관한 관심은 설탕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 시기 초기에 토지 구매자들은 대규모 센뜨랄레스를 짓기 위해 산림으로 우거진 수천 까바예리아스(caballerías)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쿠바 독립 이후 미 군정 기간에 북동부 주요 해안 지역에 거대한 센뜨랄레스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거래가 활발했는데 이 지역은 풍부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다. 1898년 이전, 쿠바 북동부에 있던 센뜨랄레스는 하띠요(Hatillo, 1840)를 비롯하여 20여 곳이었던 반면, 1899-1914년 동안 세워진 센뜨랄레스는 뜨란퀼리다드(Tranquilidad, 1900)과 마나띠(Manatí, 1912)를 비롯하여 12곳이 더 증가하였다. 1915년에서 1926년 동안은 알메이다(Almeida, 1915) 등 20여 곳이 더 늘어나서 동부지역의 센뜨랄레스는 52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 중 마나띠 센뜨랄레스는 산림이 풍부한 지역에 세워졌고 센뜨랄레스로 개발되기 전에는 마호가니와 세다르와 같은 비싼 경엽수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무가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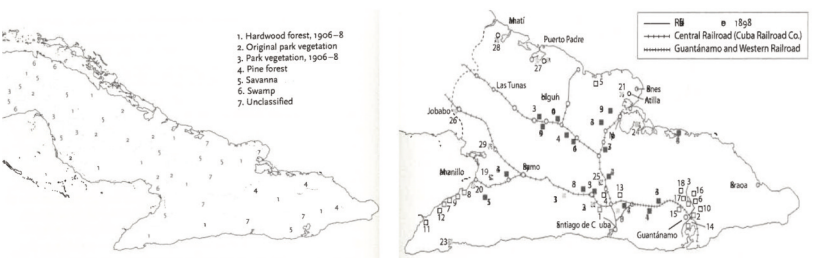
되어 햇빛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무는 목재와 땔감용으로 초기 투자 시기에는 중요했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할 즈음에는 설탕의 수송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철도연결과 같은 다른 수요가 커졌다(Monzote 2009, 233-239).

당시 설탕 사업가가 사들인 동부지역의 토지에 대한 묘사가 남아 있다. 20세기 초반 쿠바의 설탕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마누엘 리온다 이 뽀예도(Manuel Rionda y Polledo)는 미국 거주자이면서 스페인계였고, 그의 가족은 1860년대부터 쿠바에서 설탕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동부의 땅을 사들이면서 당시 그 토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땅이 평평한 약간의 구릉지였고 완만한 경사로 바다와 만에 접해있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기네아 목초(guinea) 와 몇몇 종류의 야자나무로 이루어진 광활한 사바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기록에는 모래로 된 사바나로 물이 빨리 배수되고 식물은 관목과 풀, 야자나무로 기록하고 있는 한편, 더러는 점토로 된 사바나 지역에 관해 물을 함유하는 특징도 적혀있다. 자연적인 사바나 외에도 리온다와 함께 간 관찰자는 이 땅의 일부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사탕수수가 확장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은 가축 사육이 중요한 지역이었고 방목을 위해 벌목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야자나무는 흔하고 일부는 상당한 가치를 가진 나무였다고 적혀있다. 관찰자는 만 인근에 있는 커다란 세다르(cedar)와 마호가니(mahogany)는 거의 모두 베어졌으나 일부는 남아 있다고 적고 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이 토지에서 가치가 높은 견목(hardwoods)이 벌채되었다고 기록했으며, 종종 철도 침목(crossties), 주택 건설, 울타리 등 플랜테이션에 필요한 나무가 풍부하게 있는 숲을 여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설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루이지애나 출신은 해가 지면에 닿지 않고 나무가 물 위에 서 있는 "빽빽한 밀림(solid jungle)"을 언급하기도 했다. 쿠바 동부의 이러한 울창한 땅은 특별히 유기물질이 풍부하여 사탕수수 농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기록에는 사바나 지역이 이미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사탕수수 농지의 확장에 수반된 광범위한 산림벌채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Smith 1995, 36-39).

서쪽에서 동쪽으로 설탕 산업이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1904년, 1914년, 그리고 1929년의 쿠바 지역별 설탕 생산량 1, 2위를 비교해보면 1904년에는 마딴사스(318천 톤), 산따끌라라(358천 톤)으로 섬의 서쪽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았다면 1914년에 가장 생산량이 높은 지역은 두 곳은 산따끌라라(760천 톤)와 동부지역(Oriente, 620.5천 톤)으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1929년에는 까마구에이(1,564천 톤), 동부지역(1,517천 톤)으로 확실히 설탕 재배지역이 동쪽으로 치우쳐진다. 당시 이 두 지역에서의 생산량은 쿠바 전체 생산량의 60%에 달했다(Monzote 2009, 220).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쿠바의 동부지역, 북부에서는 까브레라스(Cabreras)강, 남으로는 호바보(Jobabo)강 너머의 지역에서 설탕 산업 관련 지역이 확장되면서 쿠바의 자연환경과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Hoernel 1976, 215). 쿠바 동부의 풍부한 토지 덕분에 새로운 설탕 투자자는 사업 확장이 필요할 때 쉽게 넓혀갈 수 있었다(Ulbe & Curry-Machado 2012, 254-255).

1908년 미군은 까마구에이와 동부지역(Oriente)의 산림분포에 관한 지도를 작성하였다(그림 2).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상태였고 자급자족 위주의 가축 경제가 지배적이었다. 설탕 산업은 소규모의 사탕수수 공장과 압착 기계인 뜨라삐체스(trapiches)에 기반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0년 전쟁(1868-1878)의 끝 무렵에 비교적 소규모의 센뜨랄레스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지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1899년 통계에 의하면 뿌



〈그림 2〉 20세기 초 까마구에이(Camagüey)와 동부지역(Oriente)의 산림분포(좌), 1898-1926년 동부지역의 센뜨랄레스와 철도의 위치(우)

출처: Monzote 2009, 232-235

에르또 쁘린시뻬와 산티아고 데 쿠바 두 곳은 전체 면적의 70.5%가 경엽수로 우거진 수풀(Hardwood forest)로 구성되어 있었다. 까마구에이에 있는 해안 인근의 고지대 숲 지역에서는 1 까바예리야(0.78km²)의 면적에 300그루의 마호가니, 50그루의 삼나무(cedar), 50그루의 야바(yaba), 100그루의 오꾸헤(ocuje), 100그루의 바리아(baría), 200그루의 주까로(Júcaro), 50그루의 사비꾸(sabicú), 100그루의 지끼(jiquí), 그리고 50그루의 기타 수종이 있었다. 20세기의 첫 30년 동안 이러한 숲들은 임산물의 주요 공급처였고 수출용 목재로 이용되었다. 물론 이미 통제되지 않았던 벌목으로 사탕수수 농장과 방목지가 만들어져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1933년 쿠바 동부지역과 더불어 까마구에이 지역은 다양한 임산물을 얻을 수 있는 유력한 장소였다. 그러나 여전히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전과는 산림 통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세다르와 마호가니 벌채량은 1914년의 벌채량에 비교해 그 양이 10%로 대폭 줄어든다. 다른 수종 역시 현저히 감소하였고, 심지어 통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수종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18년에 265만 개에 달했던 사바꾸 나무 기둥(poles)은 1933년에 불과 20개로 감소하여 기록돼 있다. 야바와 아까나(ácana) 수종은 1914~1919년에 이르는 몇 년 동안은 원목의 길이가 이십만 피트(feet) 이상이었는데, 1933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Monzote 2009, 230-232).

V. 결론

단일 작물 경작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거대 농산업과 외국인 투자는 비록 최근에 극대화되었지만, 이미 그 오랜 역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쿠바 설탕 산업의 성장과 자연경관의 변화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쿠바섬 동부에서의 사탕수수 재배지역의 확장과 산림 종의 변화를 다루면서 쿠바에서의 식민시기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독립 이후의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쿠바섬에서의 설탕 산업 확장을 둘러싼 주변 또는 다른 곳에서의 역사적 사건과 쿠바섬에서의 자연환경 변화를 연결

하여 검토하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연경관의 변화를 볼 때 두 가지 사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 변화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의 변화 사이의 광범위한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섬을 대상으로, 설탕의 생산지로서의 부상과 국제 수요 증가 그리고 플랜테이션 확대와 설탕 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산림변화를 검토하였다. 수 세기에 걸쳐 발생했던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제국의 국내외적 상황, 아이티 혁명, 노예무역과 흑인 노동력의 이용, 미국의 영향 등 설탕 생산과 무역은 사회적·정치적인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그 결과는 쿠바에 사회적으로는 물론 자연적으로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생 도맹그에서의 아이티 혁명(1791)과 대체 공급지로서의 쿠바섬의 역할 증가는 쿠바에서의 설탕 산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 큰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그 이전의 스페인과 인디아스 사이의 자유무역규정(1778)을 위한 스페인 제국의 행정 및 상업 개혁도 쿠바에서의 설탕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가속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1815년 개인의 벌목 자유화는 설탕 산업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전까지 쿠바섬의 산림은 스페인 해군의 조선용 목재 공급을 위해 통제되는 자원이었다. 비록 그 시기의 통제가 산림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개인 벌목은 제한적이었기에 산림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1815년의 산림법으로 허가된 개인 벌목의 자유화는 산림이 농장이나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준다. 또한,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설탕 플랜테이션의 노동력을 제공했다. 영국과 스페인의 노예제가 각각 1807년과 1817년에 폐지되었음에도, 노예제가 합법이었던 쿠바에는 1790년에서 1860년까지 흑인 72만 명이 유입되어 플랜테이션과 설탕 농산물 가공업에 투입되었다. 1860년 흑인 노동력에 의한 사탕수수 생산은 쿠바 전체 생산량 중 89%를 차지할 정도로 흑인 노동력은 설탕 산업을 지탱하는 축이었다.

둘째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크기는 인간 활동의 종류, 크기, 규모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점은 쿠바섬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쿠바의 설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는 쿠바 설탕 산업에서 엄청난 양적 확대와 자연경관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8년 쿠바의 독립이 미군정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쿠바에서 설탕 산업에 투자할 안정된 사업 기반이 형성된 셈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의 설탕 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사탕수수 생장에 유리한 쿠바의 자연환경 조건은 쿠바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도록 했다. 미국의 설탕 산업 투자자들은 비옥하면서 값이 싼 토지를 사기 위해 당시 비교적 울창한 산림을 유지하고 있었던 까마구에이와 동부지역으로 설탕 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 설탕 산업은 재배지뿐만 아니라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기 위한 철도체계가 필요하였고, 집적화되는 거대한 설탕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과 그 기반 시설을 위한 부지가 필요했다. 이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쿠바에서 초기 전통적인 설탕 지역인 서부와는 달리 여전히 광범위한 산림이 분포하던 동부지역에서 점차 산림이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30년대 산림 통계에는 많은 수종이 이미 사라졌다. 설탕 산업이 가져온 것은 경제적 성장이기도 했지만, 산림의 벌목과 광범위한 토지 순화, 그리고 생태적 다양성을 파괴로 이어졌다. 특히 동부지역의 다양한 수종이 있던 울창한 산림과 팜나무와 관목이 있던 사바나 지역이 대단위 플랜테이션 지역과 설탕 공장으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김기현(2016),「쿠바의 지정학적 가치와 한국의 실리」, Translatin, Vol. 33, pp. 33-41.

김희순(2016),「스페인의 식민지배 거점으로서 아바나의 형성과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권 3호, pp. 113-129.

마르크 페로(편)(2008),『식민주의 흑서 상권 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고선일 옮김, 소나무.

스카파시, 조지프 L. & 포르텔라, 아르만도 H.(2017),『쿠바의 경관』, 이영민/

김수정/조영지 옮김, 푸른길.

정재호(2004),「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독립운동에 대한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3호, pp. 69-99.

한서린(2012), "워즈워스와 아이티 혁명: 계몽적 보편주의의 재구성", 19세기 영어권문학, 제16권 2호, pp. 141-167.

Alexander von Humboldt(2012), Rowan, Andrew Summers(역), *The Island of Cuba*, Charleston SC: Nabu Press.

Bergad, Laird W.(1989), "The Economic Viability of Sugar Production Based on Slave Labor in Cuba, 1859-1878."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24, No. 1, pp. 95-113.

Boyer, Helen M.(1939), "Distribution of Sugar Cane Production in Cuba" *Economic Geography*, Vol. 15, No. 3, pp. 311–325.

Curry-Machado, Jonathan(2010). *In Cane's shadow: The Impact of Commodity Plantations on local subsistence agriculture on Cuba's mid-nineteenth Century sugar Frontier*. Commodities of Empire Working Papers 16. http://www.open.ac.uk/arts/ferguson-centre/commodities-of-empire/working-papers/WP16.pdf

Hoernel, Robert B.(1976), "Sugar and Social Change in Oriente, Cuba, 1898-1946," *J. Lat. Amer. Stud.* Vol. 8, No. 2, pp. 215-249.

Knight, Franklin W.(1977), "Origins of Wealth and the Sugar Revolution in Cuba, 1750-1850",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7, No. 2, pp. 231-253.

Knight, Franklin W.(1991), "BOOK REVIEW,"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1, No. 4, p. 897. https://doi.org/10.1215/00182168-71.4.897

Hitchman J.H.(1971), "The Economy of Cuba". In: *Leonard Wood and Cuban Independence 1898-1902*.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15-0749-3_4

Manuel, Barcia(2007), "Sugar, slavery and bourgeoisie: the emergence of the Cuban sugar industry", In: Ulbe Bosma, Juan A. Giusti-Cordero, G. Roger Knight(eds.), *Sugarlandia Revisited: Sugar and Colonialism in Asia and the Americas, 1800-1940*, New York: Berghahn Books.

McNeill, John Robert(2010), *Mosquito empires: Ecology and war in the Greater*

Caribbean, 1620-19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Mark(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Sugar Production and the Environment of Eastern Cuba, 1898-1923," *Environmental History Review*, Vol. 19, No. 4, pp. 31-48.

McCollum, Justin(2011), "A Brief Historiography of U.S. Hegemony in the Cuban Sugar Industry", *Forum: The Journal of Planning Practice and Education*, (2011.04.01), pp 3-13.

Ricardo, Mestre(2021), Cuban Sugar, A Faustian Bargain, https://storymaps.arcgis.com/stories/88ab2d1a81e0456c8d9720cd1db9e443(접속일자: 2021. 11.10)

Monzote, Reinaldo Funes(2005), "Azúcar, deforestación y paisajes agroindustriales en Cuba, 1815-1926", *VARIA HISTORIA*, No. 33, pp. 105-128.

Monzote, Reinaldo Funes(2009), *From Rainforest to Cane Filed in Cuba: An Environment History since 1492*.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ortuondo, María M.(2003), "Plantation Factories: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e-Eighteenth-Century Cuba," *Technology and Culture*, Vol. 44, No. 2, pp. 231-257.

Santamarina, Juan Carlos(2001), "The Cuba company and eastern Cuba's economic development, 1900-1959," *Essays in Economic & Business History*, Vol. 19, No. 1, pp. 75-90.

Ulbe, Bosma & Curry-Machado, Jonathan(2012), "Two Islands, One Commodity: Cuba, Java, and the Global Sugar Trade (1790-1930)", *New West Indian Guide*, Vol. 86, No. 3-4, pp. 237-262.

Zanetti, O. & Garcia, A.(1998), *Sugar and Railroads, A Cuban History, 1837-1959*.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장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
suhwanjang@hanmail.net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13일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3일

The expansion of the sugar industry and changes in the natural landscape in Cuba in the late 18th and early 20th centuries

Jang, Su Hw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ng, Su Hwan(2022), "The expansion of the sugar industry and changes in the natural landscape in Cuba in the late 18th and early 20th centurie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3(2), 83-108.

Abstract This paper follows the growth of sugar industry and the change of forest landscape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Cuba. For the review, Here is chosen several point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surrounding Cuba's sugar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sugar industry on the island of Cuba, and changes in the forest landscape. During the colonial period sugar industry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Spanish Empire, the Haitian revolution, the black labor force, and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fter Cub's independence, more than anything else, the sugar industry grew with intensive investment from the United States. At that time, investment by Americans was concentrated in the undeveloped eastern part of Cuba rather than the existing cultivated western and central regions. The reason is that finding an area where new technology can be directly applied was cheaper than replacing the old one, and the price of undeveloped land was cheaper than that of the cultivated land. It was also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could achieve higher productivity in less cultivated nature land. As a result, infrastructure for the sugar industry, such as sugar factories and railways, was actively built in Camaguey and far eastern areas, a forested area that was relatively dense compared to the western part of Cuba before independence. In the process, the landscape of eastern Cuba is replaced by large plantation areas and sugar factories from dense forests of various species and savanna areas with palm trees and shrubs.

Key words Deforestation, Sugarcane Plantation, Domestication, Oriente, Camagüey